

미국의 주류산업현황

목 차

1. 주류산업 현황
2.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제
3. 주류 수입관리 제도
4. 주류관련 세금
5. 연료용 알콜 현황

1. 주류산업 현황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미국의 주류시장은 3대 주종인 맥주(Beer),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s)와 작은 규모이지만 Cider/Perry(사과주/배주)와 FABs(Flavoured Alcoholic Beverages)¹⁾를 포함해서 5가지 주종이 전체 주류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주류시장의 판매량은 2004년에 총287억 8,640만 리터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도 전년대비 1.7%증가 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시장의 84.1%의 점유율로 가

장 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맥주(Beer)시장이 242억 1,190만 리터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은 포도주(Wine)시장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7.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류주(Spirits)시장은 전체 주류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Cider/Perry와 FABs(Flavoured Alcoholic Beverages)의 시장은 2004년에 각각 3,490만 리터와 8억 1,270만 리터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Cider/Perry시장은 2003년과 2004년에 전년대비 각각 3.4%와 3.6%의 높은 판매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FABs는 1998년-2003년간 116.4%의 판매증가율을 달성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전년대비 2.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4년 미국 주류시장은 판매액 기준으로 1,461억 6,530만 달러로 매년 4.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98년-2003년간 년평균 4.5% 성장을 달성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대비 4.0%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1) 맥주

맥주(Beer) 출고액은 2002년에 176억 110만 달러로 1997년의 182억 350만 달러 대비 3.3% 줄어들었다.

1)와인쿨러와 같이 향료가 함유된 알콜음료를 의미하며 유명 브랜드로는 Srimoff Ice, Sky Blue, Barcardi Silver O3 등이 있다

1998년 183억 150만 달러를 정점으로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 2001년 대비 다소 증가 하였다.

지난 1998년-2003년간 년평균 0.7%씩 성장했으며 특히 2004년에 전년대비 1.4% 성장하여 판매증가율이 높지 않으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맥주 시장은 742억 3,650만 달러 규모로 전체 판매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물량 기준으로 84.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리터당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와인이나 Spirits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verage World사가 “Annual Market Index 2005”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의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82.13 리터(21.7 갤런)로 2003년의 82.51 리터(21.8갤런) 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마시는 맥주 병(355ml 사이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231병을 마신 것으로 해석된다.

2) 포도주

포도주(Wine)의 출고액은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7년 61억 9,460만 달러에서 2002년 93억 9,860만 달러로 5년간 51.7%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와인시장은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년평균 2.6%의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했고 2004년에도 전년대비 2.9%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이런 높은 성장률로 인해 판매량은 2004년에 22억 8,330만 리터 규모로 성장하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2004년에 240억 9,990만 달러로 전체 주류시장의 16.5% 점유율을 나타냈다. 1998년-2003년간 년평균 4.3%씩 성장했으나 2004년에는 전년 대비 3.1%의 성장률을 보여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판매증가율을 보였다.

포도주의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7.95 리터(2.1갤

론)로 나타나 연간 750ml짜리 Regular 병계품을 10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1인당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Beverage World사의 “Annual Market Index 2005”는 집계했다.

3) 증류주

Spirits(증류주)의 출고액은 1997년 39억 1,100만 달러에서 2002년 40억 5,750만 달러로 5년간 3.7% 증가했다. 특히 Spirits의 수입은 매년 7%~8%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포도주와 같이 Spirits의 시장도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판매량은 2004년에 14억 4,350만 리터 규모로 1998년-2003년간 년평균 2.4%의 성장을 지속했으며 특히 2004년에 전년 대비 3.8%의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했다. 판매액 기준으로는 Spirits시장이 434억 830만 달러로 전체 주류시장에서 29.7%를 차지해 두 번째 큰 시장으로 나타났다. Spirits 시장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년평균 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전년 대비 4.6% 증가 하였다.

Spirits의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5.3 리터(1.4갤론)로 나타나 2003년의 4.92 리터(1.3 갤런) 보다 7.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Beverage World사의 “Annual Market Index 2005”는 집계했다. 따라서 2004년에 일반적으로 마시는 Spirits 병(750ml 사이즈)으로 1인당 연간 7병을 마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주류시장/주종별 판매액

(단위 : US\$백만)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Beer	61,591.5	64,350.5	66,246.5	68,518.7	71,391.2	74,236.5
Cider/Perry	176.4	177.9	199.5	196.1	182.7	178.7
FABs	1,991.0	2,327.2	3,181.8	3,916.8	4,120.0	4,271.9
Wine	20,612.8	21,221.0	21,446.9	22,596.9	23,336.3	24,069.9
Spirits	34,806.5	36,264.0	37,549.2	39,995.9	41,482.8	43,408.3
합계	119,178.3	124,340.6	128,623.9	135,114.2	140,513.0	146,165.3

* 자료: 미국 노동부, 삼무부 센서스국, Beer Institute, Wine Institute, Euromonitor 등

나. 주요 주류별 수출입 동향

미국의 최근 3년간 전체 음료(HS Code 22류)수출액은 매년 13% 정도 증가하여 2004년에는 22억 6,50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7억 4,819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포도주(HS 2204)가 전체 수출의 33.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Spirits(HS Code 2208)가 32.8%로서 7억 4,256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4년 맥주 수출실적은 1억 6,751만 달러로 2002년의 1억 7,143만 달러, 2003년의 1억 7,553만 달러에 비해 500~600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반전세를 보이고 있다.

주 수출국은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로 2004년 기준 각각 5,158만 달러(점유율 30.8%), 4,976만 달러(점유율 29.7%)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두 국가에 수출하는 금액이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만(1,660만 달러, 9.9%), 홍콩(990만 달러, 5.9%), 일본(392만 달러, 2.3%), 한국(340만 달러, 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 한국 수출실적은 최근 4년간 350만 달러에서 420만 달러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의 포도주 수출은 2003년에 13.3%, 2004년에 24.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2004년 총 7억 4,819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2005년도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7.3%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40.0%에 해당하는 약 3억 달러 어치는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대 영국 수출은 2003년에 12.8%, 2004년에 40.7%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 캐나다 수출로 2004년에 1억 1,49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8,570만 달러, 11.5%), 일본(5,527만

달러, 7.4%), 독일(2,668만 달러, 3.6%)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 수출은 2003년의 357만 달러에서 2004년에 617만 달러, 2004년에 740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4.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이미 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증류주(Spirits)는 매년 10%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에 전년대비 10.7%, 2004년에 전년대비 15.4%의 증가율을 보여 2004년에 7억 42,567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선진국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영국 수출은 1억 2,029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3%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로 수출액이 1억 달러에 달해 13.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하는 수출대상국은 독일(8,083만 달러, 10.9%), 호주(7,693만 달러, 10.4%), 일본(6,269만 달러, 8.4%) 등이며 상기 5개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2003년에 1,000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2004년에는 334만 달러로 급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증류주(Spirits) 수출량은 2004년에 1억 4,179만리터로 전년대비 8.5% 증가하는 등 최근 2년간 7%에서 8%의 증가하였으나 대 한국 수출은 2004년에 8억 7,059만 리터로 전년대비 8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음료(HS 22류) 수입은 지난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에 전년대비 12.9%, 2004년에 7.6% 증가하였다.

총 수입액은 2004년 기준 117억 8,050만 달러로 이 중 증류주의 수입이 2004년에 40억 달러를 상회해 전체 수입의 34.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포도주 수입

이 34억 달러(28.9%), 맥주 수입이 27억 7,290만 달러(23.5%) 순이며 이들 3가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음료 수입의 86.5%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맥주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7억 7,289만 달러로 2002년의 25억 8,012만 달러, 2003년의 26억 8,147만 달러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 수입국으로는 NAFTA 회원국인 멕시코로부터 전체의 42.3%가 수입되어 2004년에 11억 7,25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 멕시코 수입은 2003년에 6.6%, 2004년에 9.3%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대 네덜란드 수입이 8억 9,425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맥주의 수입은 2004년에 133만 달러로 매년 13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한국산 맥주는 아직 일반 주류전문점(리큐 스토어)에서 범용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수입상(도매상)을 통해 한국 식당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맥주 수입물량은 2004년에 28억 리터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소폭의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맥주의 수입은 2004년에 18위로 229만 리터가 수입되어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포도주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에 22.3%, 2004년에 4.8% 증가 하였는데 다른 알콜음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04년의 수입실적은 무려 34억 달러를 기록해 2003년 대비 1억 5천만 달러가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단연 프랑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 2004년에 전체 수입의 30.8%를 차지하는 10억 4,737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가 2004년에 9억 5,252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산 포도주의 수입은 3위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 7억 3,178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주 수입물량은 2004년에 6억 4,150만 리터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2004년에 이탈리아와 호주로부터 약 2억 리터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프랑스로부터 약 1억 리터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칠레, 스페인, 아르헨티나, 독일, 포르투갈로부터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

위스키, 보드카, 테킬라 등을 포함한 증류주는 2003년에 12.9%, 2004년에 8.8%로 상당히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프랑스(전체 수입의 24.7%), 영국(24.5%), 멕시코(11.2%), 스웨덴(9.1%), 캐나다(8.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4년에 각각 9억 9,495만 달러와 9억 8,499만 달러로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대 한국 수입액은 2004년에 전년대비 15.6% 증가한 623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산 증류주로 수입하는 것은 소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증류주 수입량은 2004년에 약 5억 리터로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한국산(주로 소주)의 수입은 2004년에 15.3% 증가했으며 수입상(도매상)을 통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주로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소주를 좋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인 운영 리커스토어에서도 조금씩 납품되고 있다.

2.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제

정부의 지원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주(州)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공존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농무부와 상무부가 경작과 생산 그리고 수출

및 투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지원책은 일반적인 농산품과 공산품에 적용되는 지원책과 다른 것이 없다.

주(州)정부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경작과 생산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포도주의 경 mBeverage Control, State Liquor Authority)이 알콜음료통제법(일명 ABC법 = Alcohol Beverage Control)을 바탕으로 알콜음료의 판매규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1세 미만은 판매금지 대상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ID)을 확인해야 함)일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술 또는 마약에 취한 사람, 습관적인 음주자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알콜음료 소매상들은 임신부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아울러 점포 내에서도 어린이가 알콜음료를 운반하거나 소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주류 수입관리 제도

가. 수입허가 요건

미국에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와 라벨링(성분표시 포함) 규정과 관세 납부등 수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라이센싱과 라벨링 허가는 ATF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수입절차는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 주류를 재판매(Resale)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Importer's and/or Wholesaler's Basic Permit."을 획득해야 한다.

상표를 부착하기 위한 "Certificate of Label Approval"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모든 주류는 제품명, 알콜도수, 알콜종류, 원산지, 경고 문구, 첨가물 내역, 순내용물, 색소함유여부, 숙성기간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나. 수입절차(Import Procedures)

실질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알콜음료 수입자는 회사 레터헤드(Letterhead)를 사용한 커버 레터(Cover Letter)를 ATF의 "Product Compliance Branch"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 생산업체의 레터헤드를 사용해야 하며 생산방법과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기재하고 직원이 서명과 날자를 명기해야 한다. 모든 알콜음료에 샘플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샘플은 사전 수입허가와 병행해서 요구되고 있다. 1갤런 이상의 벌크 컨테이너로 수입된 증류주(Spirits)는 벌크 상태로 증류주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관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다.

벌크 또는 병 포장알콜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나 상업송장(Invoice)을 제출하고 상업송장에는 수취인의 이름과 제품 내역, 수량 등을 표기하며 관세(Customs Duties and Tariffs)를 납부한 후 통관한다.

4. 주류관련 세금

미국에 주류제품을 수입하는자는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3가지 그룹은 1등급(General, Special)그룹과 2등급그룹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쿠바, 이란, 북한 등과 같이 적성국가로 분류하거나 통상의 제한이 있는 국가들이며 이들에게는 1등급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등급은 "General"과 "Special"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이 미국과 특별히 관세상의 혜택을 받도록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반국가들은 "General"로, 특별

한 관세혜택을 제공하기로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Special"로 분류하고 있다.

"Special"에 속한 국가들은 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안테안 경제진흥조약 가입국, 카리비안 경제개발조약가입국 등과 같이 기존에 미국과 특별한 경제 및 통상조약이 있는 국가들과 싱가포르, 모로코, 바레인 등과 같이 최근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주류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주류에 대한 세금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Alcohol and Tobacco Tax, Trade Bureau(ATTB)의 National Revenue Center(NRC)에서 관장하고 있다.

주류에 부과되는 내국세는 (1)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2) 비즈니스 허가(Permits)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종별로 차이가 있다. 맥주는 1배럴(31갤런, 117.34 리터)당 18 달러(12oz 캔당 5센트)가 부과되되 200만 배럴 미만을 생산업체는 처음 6만 배럴까지 배럴당 7달러(12oz 캔당 2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포도주는 알콜농도가 14% 미만인 경우 갤런(3,785 리터)당 1.07 달러(750ml당 21센트), 14%-21%는 갤런당 1.57 달러(750ml당 31센트), 21%-24%는 갤런당 3.15달러(750ml당 62센트) 등으로 부과하고 Naturally Sparkling Wine은 갤런당 3.40달러(750ml당 67센트), 인공적으로 탄소가 함유된(Artificially Carbonated) Wine은 갤런당 3.30 달러(750ml당 65센트), Hard Cider는 갤런당 22.6센트(750ml당 4센트)를 부과한다.

포도주의 경우 연간 15만 갤런 이하를 생산하는 업체는 첫 10만 갤런은 갤런당 90센트(Hard Cider는 5.6센트)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Spirits의 경우 모든 주류에 Gallon당 13.50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나 만일 포도주나 향료 등과 같은 내용물이 들어 있을 경우 포도주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해 주고 있다.

ATF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주류판매업체의 세금은 "Special Occupational Tax(SOT)"라는 항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ATF는 모든 종류의 알콜 음료 중 어느 하나라도 판매하면 주류판매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5. 연료용 알콜 현황

가. 기술개발 동향

미국에서 생산되는 연료용알콜은 에탄올(Ethanol)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수수, 밀, 보리, 감자와 같은 다른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되기도 한다. 에탄올 생산공법은 건조방식(Dry Mill)과 습식방식(Wet Mill)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건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옥수수 전분의 일부가 설탕으로 숙성된 후 알콜로 증류하는 공법이다.

최근 기술개발 동향과 관련 "Novozymes & BBI International"사가 2005년 6월에 발표한 "Fuel Ethanol - Technological Evolution"에 따르면 분자조리(Molecular Sieves)를 사용한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 방법은 분자조리탈수기술(Molecular Sieve Dehydration Technology)을 사용해 "Alumino-Silicates"와 같이 매우 정교한 틸구멍(Pore) 만큼의 공정을 거친다.

1980년대 중반에 프로세스자동화는 아날로그리통제(Analog Loop Controls)와 복잡한 공기압력통제(Complex Pneumatic Controls)로 구성되었던 것이 1980대 후반 분배통제시스템(DCS : Distributed Control Systems (DCS))로 대체 됨에 따라 중앙에서

한국산 주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 자료 : 미국 관세청

HS 코드	품목 명세	수입관세율
2203	맥주 (Beer made in malt)	Free
2204	포도주	
10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	19.8¢/litre당
2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 (알콜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	
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1.20.00	Efervescent Wine	19.8¢/litre당
21.30.30	기타 포도주, 알코올 농도 14% 이하	6.3¢/litre당
21.60.00	기타 포도주, 알코올 농도 14% 초과	5.3¢/litre당
21.80	기타	16.9¢/litre당
21.80.30	Sherry	
29	기타, 2리터 이상, 4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29.20	포도액 알코올 농도, 14% 이하	8.4¢/litre당
29.40.00	알콜 농도 14% 초과	22.4¢/litre당
29.60.00	기타, 4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알콜농도 14% 이하	14¢/litre당
29.80.00	기타, 4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알콜 농도 14% 초과	22.4¢/litre당
2205	베르뫼트와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1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0.30.30	베르뫼트	3.5¢/litre당
10.60.00	기타	4.2¢/litre당
90	기타	
90.20.00	2리터 이상 4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3.5¢/litre당
90.40.40	4 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3.8¢/litre당
90.60.60	기타	4.2¢/litre당
2206	기타 발효음료	
00.15.00	사이다(Cider, Weather still or sparkling)	0.4¢/litre당
00.30.00	포도주 원액(Pure Wine)	3.1¢/litre, 에틸 알콜 Proof 22.1 º
00.45.00	쌀주 또는 사케(Rice wine or sake)	3¢/litre당
00.60.00	기타, Efervescent wine	13.9¢/litre당
00.90.00	기타	4.2¢/litre당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및 변성 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순도 80% 이상	
10.30.00	비음료 목적	2.5¢/litre당
20	변성 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	1.9¢/litre당

1) "Proof Liter" 의 정의 : A liter of liquid at 15.56 (60°F) which contains 50 percent (100 proof) by volume of ethyl alcohol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7939 at 15.56 (60°F) referred to water at 15.56 (60°F) as unity or the alcoholic equivalent thereof.

2) Mezcal은 Agave Plant로 만든 멕시코산 Spirits의 일종임

HS 코드	품목명세	수입관세율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농도 80% 미만의 것), 증류주, 기타주정음료	
20	포도주로 만든 브랜디	
20.30.00	리터당 가격 \$2.38, \$3.43 이하	Free, Proof Liter 기준
20.40.00	리터당 가격 \$3.43 초과	Free, Proof Liter 기준
20.60.00	리터당 가격 \$2.38 초과	Free, Proof Liter 기준
30	위스키	Free, Proof Liter 기준
30.30	Irish and Scotch	Free, Proof Liter 기준
30.60	기타	Free, Proof Liter 기준
40	럼주, 태피아	Proof Liter 당 23.7 ¢
50.00	진 및 체네바	Free
60	보드카	Free
70.00	리퀘(Liqueurs) 및 코디얼(Cordials),	Free
90.75.00	Mezcal, 기타	Free
90.80.00	기타 Spills	Proof Liter 당 21.1 ¢
2209	00.00.00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Proof Liter 당 0.5 ¢

생산공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성능이 더욱 개선되어 시스템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50% 이상 줄게 되었다.

효소는 에탄올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소의 발전이 에탄올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 기술 개발은 효소 생산 코스트를 지난 25년간 75%나 감축시켰다. 이는 직접적으로 에탄올 생산 코스트 절감에 큰 영향을 주었다. 30% 이상의 고체를 사용할 수 있는 초고중력발효(VHG : Very High Gravity Fermentation)도 개발되었고 아울러 발효와 당화를 혼합한 생산방법도 개발 되었다.

나. 연료용 알콜시장의 향후 전망

미국의 에탄올 생산은 전례에 없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에 28억 갤런을, 2004년에는 34억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했다. 한편, 2005년 말에는 40억 갤런이 넘는 양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이런 놀라운 성장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는 90개의 에탄올 생산시설이 있으며 주로 옥수수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옥수수는 미국의 에탄올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에탄올은 또한 수수, 밀, 보리, 사탕수수, 비트, 치즈 유장, 감자 등에서도 추출되기도 한다. 아울러 재할 용품, 쌀 껍질, 사탕수수 찌꺼기 등에서 추출되는데 이러한 에탄올 제품은 영리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2004년도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 수요는 35억 갤런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등에서 2004년 1월부터 재합성 가솔린(Refomulated Gasoline)에 함유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의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향후 에탄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에탄올은 더욱 매력적인 대체연료로 부상할 것을 전망하면서 앞으로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이상 유지된다면 에탄올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